



미가의 윤자장엄법문

선재 동자는 선주 비구로부터 '드라비다'라고 하는 나라의 자재성(自在城)에 있는 미가(彌伽)를 찾아가서 보살행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를 찾아갔다. 자재성에 이르러 보니 미가는 시장 가운데에서 법좌(法座)에 앉아 일반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윤자장엄법문(輪字莊嚴法門)을 연설하고 있었다. 윤자장엄법문이란 언어와 문자를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유롭고도 훌륭하게 구사하여 교법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미가는 세속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세속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간의 기예와 문자를 훌륭하게 다루고 갖추어서 그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법문을 설하여 해탈을 얻게 하고 있다.

선재 동자는 그에게 법을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미가는 선재 동자에게 세삼스럽게 무상보살임을 이미 내었는지를 묻자, 선재 동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미가는 문득 법좌에서 내려와 선재 동자에게 오해투지로 예경하고, 갖가지 공양거리로 공양하며 선재 동자가 무상보살임을 낸 것을 칭찬하였다.

선재 동자의 물음에 미가가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의 법을 물으러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도

갖가지 법 설해 환희심, 해탈 얻게 해

중생들의 말 모두 분별해 진리 설명

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법기(法器)가 되기 때문에 초보의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공경을 받을 만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가의 태도를 통해서 아만심(我慢心)을 버리며 보살행을 행하는 자세와 함께 제자를 진정으로 격려하고 지도하는 스승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선재 동자의 물음에 미가가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의 힘과 덕(德)에 관한 것이다. 그는 먼저 보

리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보리심을 낸 사람은 모든 부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끗하게 정업한다. 모든 중생을 성숙케 하고 모든 법의 성품을 통합하게 한다. 모든 행을 원만케 하고, 모든 서원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또한 모든 중생세계를 편안케 하니 나쁜 길을 버리게 하고, 어려운 데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가난의 근원을 끊게 하는 까닭이다."

이어서 미가는 보리심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보살의 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믿을 곳이니 중생을 키우고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을 건지는 사람이 되니, 여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의지할 곳이니 세간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사람이 되니, 그들의 공포심을 면하게 하기 때문이다. ...뱀사공과 같이 진리의 바다에 나무를 보여 그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다리와 같으니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리심의 힘과 덕에 대해 설하면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 <무량수경>에서는 바위나 냇물과 같은 무정물조차도 불성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오히려 어리석은 질문이다. 당연한 질문인데, 조주는 단호하게 '무'라고 외쳤다.

있는 중생들이 이 광명을 만나고는 모두 미가가 있는 곳으로 모여 들었다. 미가 대사(大師)가 이들에게 윤자장엄법문(輪字莊嚴法門)을 연설하고 분별 해석하니 저 중생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 아늑다스름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가는 다양한 중생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갖가지 법을 설하여 환희심을 내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한다.

미가가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한 응상(應相)이니를 얻었으므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말을 모두 분별하여 알 수 있다. 나는 다만 이 보살들의 묘한 응상(應相)이니를 명법문만을 알 뿐이고, 저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중생의 여러가지 경계에 두루 들어가는 공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미가가 터득하고 있는 법은 세속의 여러 중생들의 언어에 통달해 있는 것이다. 언어는 중생들이 서로 교감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중생들 상호간의 세속생활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가는 묘(妙)축(畜)라니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들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시설된 모든 수단 즉 문자, 언어, 문장 등 모든 것에 통달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활용하여 모든 경우에 적절하고도 진실하며 아름다운 언어로써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면 반드시 모든 장애를 없애고 해탈을 얻게 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마음은 에너지와 같은 성질 지녀

<한마음 요전>에 의하면 "우주의 공(空)에서 4대(四大)가 벌어지고 4대로부터 입자가 생산되고 그 입자가 모인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체(體)가 없는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마음을 명법문만을 알 뿐이고, 저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중생의 여러가지 경계에 두루 들어가는 공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공대 교수 로버트 잔과 심리학 교수 브랜다 튜은 전자난수(電子亂數) 발생기(RNG)를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이 전자(電子)에 미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연구하였

발표된 논문이 2천54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몸밖으로 방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양자생물학자 글렌 라인은 심령치료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마음을 내면 그것은 빛보다 빨리 우주 법계를 뚫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 마음을 물리적 에너지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 오늘날 지식으로는 '마음의 에너지'에 관하여 과연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다.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 커큘(Les Kirkup)은 마음의 내용을 전송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이것을 마인드 스퀴어라고 불렀다. 마인드 스퀴어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텔레비전아 켜져라', '오디오아 켜져라', '냉장고아 켜져라', '형광등아 켜져라'라고 마음

집합무의식 통해 사람사이 정보 전달

몸 밖으로 방사 동물, 식물, 물질에도 전송

다. 즉, 마음의 의지대로 전자의 '0'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전자의 '1'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가를 1970년부터 1996년까지 1262건에 달하는 방대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전자(電子)를 통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마음의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미국 심리학자 찰스 님트, 마리아 솔리츠, 더그라스 딘, 프랑스의 심리학자 장 바리 그리고 네델란드의 심리학자 엘렌더 허벌드슨 등은 국제간 공동 연구를 통하여 사람 마음 속의 집합무의식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딘 라인은 <의식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하여 1974년부터 1997년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의 전달에 관하여

를 먹으면 이 마음의 내용이 무선으로 전송되어 95%에서 정확히 그렇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이 텔레비전, 오디오, 냉방 및 형광등 등에 전달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우주선 아폴로 14호의 우주인 에드가 미첼과 지구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마음의 전송(spiritual telegraph)이 가능한가를 실험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 후 미국은 지구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인공위성에 있는 전자 장치와의 사이에도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학이 불교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마음은 에너지와 같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물질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18

화두 공부에서 열가지 병

화두란 삶 자체다. 산길을 걸어보고, 도시의 자동차 소리를 들어보라. 그 자체로 경이로울이다. 그것은 산뜻한 행복감이다. 하지만 일상의 바쁜 우리는 전화벨 소리에 도 짜증이 나고 날씨처럼 감정이 들쭉거린다. 어떻게 할까?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고 억누른다. 억눌린 감정은 더욱 거북스럽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공부의 병이다.

대중 여러분, 조주의 무자(無字) 화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노승은 다만 무자를 들어서 문득 쓴다. 그대들이 만약 이 무자를 놓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천하의 누구도 그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하는가?

선문에서는 보통 이런 병을 열 가지 지해의 병이라고 부른다. 화두를 잡구하는데 있어 잘못된 열 가지의 병을 지적한 이는 대혜 선사이다. 이것을 보조 선사는 '십종 지해지병(十種知解之病)'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런 화두 잡구에서 발생하는 지해의 병통을 처음 지적한 이는 무자화두를 도입한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 선사였다. 그는 법당에 올라 다음과 같이 설했다.

경험아닌, 논리적 개념에 의한 해답 찾는 길

풀고자 한다면 철두철미하여야 한다. 말해 보라. 나는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바리하지 않는다. 또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기서 대부분 조주 선사와 같은 대덕의 말씀이니, 어떤 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자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렇고, 경전공부도 그렇고, 선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로 방식은 고수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관념으로 헤아리는 공부를 '지해의 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에 의한 해답을 찾는 길이다. 사실 개념은 추리이다.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다. 개념의 대상은 관념이다. 체험의 대상은 삶 그 자체이다. 삶을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의 습성은 불성을 파악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활용하여 해석하려 든다. 이것은 확실하게 병통이다.

대답해보라. 불성은 있는가? 혹은 없는가? 동시인가? 아니면 불성은 있지도 없지도 않는가? 이런 네 가지의 분별에 의지한 질문은 초기 불교경전의 문답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은 경험이나, 개념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환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문에서처럼 눈을 깜빡이고, 소리를 질러대고, 주장자를 치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광대롭다. 귀신이 지나가는 방귀소리이다. 차라리 돌아서서, 냇물에 손을 씻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시장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겠다. 무(無)야.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신라천년의 승점 화강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판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산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 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맞춤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연 제: 아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수시모집(1주, 2주, 3달)
▶ 대 상: 초·중·고·대학생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교육은 할인됩니다.
▶ 참가비는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
▶ 접수비 아예없어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예약계좌로 입금바랍니다.
☎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 수련 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접수 및 문의: Tel. 054)744-1689, 745-0246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4시	가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와 경승(학성)
6시	조경, 등산	16시	윤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학성)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 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고양	21시	점오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회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여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부)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마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긴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에 의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긴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 - 1502 저수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에인다가사야도초청 위빠사나 수련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위빠사나 수행법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지는 많으나 위빠사나 수행하는 이는 적네..."

● 일시 : 6월 16일(월) ~ 6월25일(수) - 9박 10일

◆ 수련비 : 30만원
◆ 지도스님 : 에인다가 사야도(미얀마스님)
◆ 준비물 : 간편복장, 세면도구, 노트, 필기도구,담마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통찰의 체질"이나 "지금 이순간 경이로운순간"을 읽고 오세요.

사야도 에인다가

● 품계 : 담마 까디까(법문 법사)
● 까마 타나 싸리아 (수행지도 법사)

- 1956년생
- 10세 출가 -제방스승을 찾아 삼장을 섭렵함.
- 33세 마하시 선원, 나옹강에 선원, 모곡 선원 아동담마 선원에서 용맹정진
- 36세 5년간 강원(비구사미)에서 삼장을 가르침 (간타와사까 라는 칭호로)
- 41세 마하시 선원에서 "까마타나 싸리아" 사야도로 추대됨
- 42세 떠담 마라다 선원 큰사야도의 심대 제자로 지금까지 수행지도

▷ 연락처 : 031)574-5585, 528-5585 / Fax 031)574-0808
www.bonginsa.net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봉인사 한길정진원